

## 강해설교 준비지침

김진태 교수

### I. 우선과제

본문을 철저히 연구하고 적용점들을 찾으라! (해석학 개요 참조)

#### 1. 고려사항: 본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1) 본문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2) 본문이 현재 몽골인에게 의미하는 바는?

3) 본문이 현재 우리 학생 개개인에게 의미하는 바는?

4) 이러한 의미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어떤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가?

#### 2. 이번 설교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선언문을 작성하라.

고려사항: 위의 적용점들은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 II. 적용점을 찾았으면 그 가운데서 단일 대지를 설정하라!

1. 원칙 1: 모든 설교는 단일대지를 가져야 한다. 하나의 간단명료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없는 설교는 아직 준비가 부족한 설교이다.

\* 설교의 모든 요소는 서로 연관이 있어야 한다.

\* 설교는 하나의 탄환이지, 여러 개의 산탄이 아니다.

2. 원칙 2: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설교는 능력이 없다.

3. 원칙 3: 대지는 성경 본문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도출하는 것이지, 설교를 구성할 때 얻는 것이 아니다.

3. 우선과제: 본문의 문법적 구조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소한 부분 때문에 전체를 놓치지 말라.

### III. 본 설교 목적을 어떤 방법으로 성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1. 설교 형태를 결정하라.
  - 1) 강의하듯이 개념을 설명할 것인가?
  - 2) 명제를 증명하는 논문처럼 할 것인가?
  - 3) 한 원칙을 건별로 적용하는 형식을 취할 것인가?
  - 4) 이야기하듯이 예화로 할 것인가?
2. 설교의 개요를 구성하라!

#### IV. 설교의 서론과 결론을 만들라!

1. 서론: 처음 3분 안에 청중의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예화나 이야기로 시작하라.
2. 결론: 짧은 시간 내에 확실히 끝나는 분위기로 끝내야 한다. 흔히 사용되는 끝내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결론의 내용이 함축된 예화로 끝냄.
  - 2) 주제와 맞는 성구를 인용, 간단히 부언하여 끝냄.
  - 3) 명언을 인용하여 끝냄.
  - 4) 본문을 요약하고, 재도전함으로 끝냄.
  - 5) 적용점이 담긴 기도로서 끝냄.

#### V. 설교를 준비했으면 먼저 이를 설교자 본인에게 적용한 후 필요하면 수정하라!

1. 설교자 자신이 그대로 살아야 한다.
2. 설교자 자신이 말씀에 은혜 받아야 한다.
3. 이를 위해서는 설교하기 최소한 5일전에 설교원고를 완성하고 5일간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실천해 보라.
5. 실천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예화가 있으면 이에 따라 원고를 수정하라.

#### VI. 최종원고작성

1. 1주간의 실천을 통해 수정된 원고를 가지고 본인이 2번 이상 거울 앞에서 연습해 보라. 이 때 녹음이나 녹화를 해서 청취하도록 하라.

2. 연습 시 20분 정도의 설교원고이면 바람직하다. 연습 시 시간보다 실제 설교 시는 같은 원고일지라도 시간이 30% 정도 더 걸리는 것을 감안해서 시간을 책정하라.

3. 만일 시간이 초과되는 설교이면 대지와 상관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제거하여 시간을 줄이라. 설교의 성공여부는 여기서 결판난다.

#### V. 설교시 주의사항

1. 청중을 보면서 설교해야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다. 원고는 참고용이지 낭독용이 아니다.

2. 내용에 따라 어조를 변화시켜야 졸립지 않은 설교가 된다.

3. 설교시간은 40분을 초과하지 말도록 하라. 정상인의 집중 가능한 시간은 20분이다.

4. 결길로 가지 말고 설교본문과 원고에 집중하라. 본문외의 구절을 과도하게 인용하면 원래의 의도가 희석된다.

5.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설교하라. 열정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이다. 설교내용이나 본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전하라. 비록 자신이 없을지라도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명심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전할지 생각하며 전하라.

6. 청중의 주의를 방해하는 복장, 용모, 동작을 삼가라.

7. 표정관리: 가능하면 유연한 표정을 유지하고 적당한 해학을 사용하라.